

우리의 거룩한 회칙: 사랑과 평화의 문서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은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리웠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더욱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교 봉사 정신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합당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회칙 14 조)

제가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서약한 지 18 년, 지난 그 18 년을 되돌아보면, 가장 변함없고 충실한 삶의 양식인 이 거룩한 회칙에 서약했다는 것에 가장 감사하고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원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의 다른 길이 있고, 여러 가지의 다른 양성과정이 있으며, 재속프란치스코 회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사도직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 말씀과 성체 그리고 성무일도를 드리며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드리고 숭배하게 해 주는 우리의 어머니이신 교회의 전례처럼, 우리를 진실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회칙입니다.

우리의 형제이며 총관구장이신 Tibor Kauser 께서 “회칙을 삶으로 살지 않으면, 회칙은 공허한 문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회칙을 활용해야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회칙에 서약한 우리는 회칙에 있는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회원들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간단없이 평화를 건설해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누구에게도 신적(神的)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조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회원들은 완전한 기쁨의 전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회칙 19 조)

저는 특별히 이 19 조를 좋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19 조의 첫 말씀으로 우리는 평화 전달자라고 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언젠가 평화의 전달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의 전달자로 이미 평화의 보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 은총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총의 선물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느낌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평화와 선이 있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해 행동으로 하는 사랑, 다른 이들을 위해 매 순간순간을 결정을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회칙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신성한 행위이며, 대부분의 경우 매우 어려운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손상되고 배반을 당했을 때 특히 신뢰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고,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이는 결국 판단과 비판을 하게 됩니다. 판단과 비판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신뢰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이 안에 신성함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 들 안에 있는 신성함을 찾아보려면, 강한 도수의 특별한 안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말하며 서약했던 회칙, 삶의 회칙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며 회칙을 사랑한다면, ,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로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될 것 입니다.